

오순절 후 세번째 주일

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4년 6월 9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187 장 “비둘기같이 온유한” (통일 171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23 번 시편 43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김강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막(Mark) 3:20-35, 고후(2 Cor.)4:13-5:1	양용일 집사
찬 양 Anthem	“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성령을 모독하는 자는” (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주께 가까아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파송 찬양 Closing Hymn	424 장 “아버지여 나의 맘을” (통일 216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

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며,

우리의 삶에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

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,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한탄하면서도,

정작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.”

주님께서 우리에게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, 소금이 만일 그 맛을

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?” 또한 “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

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”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,

진정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도,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며,

삶이 뒷받침되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마 5:13-14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‘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,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.’ 하시니” (막 3:28-29)

“I tell you the truth, ‘all the sins and blasphemies of men will be forgiven them.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; he is guilty of an eternal sin.’” (Mark 3:28-29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6/9 (주일)	6/10 (월)	6/11 (화)	6/12 (수)	6/13 (목)	6/14 (금)	6/15 (토)
	신15	신16	신17	신18	신19	신20	신21
본문	시102	시103	시104	시105	시106	시107	시108,109
	사42	사43	사44	사45	사46	사47	사48
	계12	계13	계14	계15	계16	계17	계18

수/요/ 찬/양/집/회

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6/12수 오후7:30)	“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” (엡4:25-32)
토요 새벽기도회(6/15토 오전6:30)	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” (시142:1-7)

지난 주일 (6/2) 말씀

“사람을 위한 안식일” (신 5:12-15, 막 2:23-3:6)

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른스트-디터 란터만(Ernst-Dieter Lantermann)은 그의 책 “불안 사회”에서,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현실 속에서, 사람들은 1)혐오(Hatred), 2)고립(Isolation), 3)급진주의/광신주의(Radicalism/Fanaticism) 양상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(이처럼) 쉽고 안식은 누리지 못한 채, 늘 불안해 하고, 바쁘지만 한 우리를 향해, 예수님께서 “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”(마11:28) “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”(요14:27)고 말씀하셨고, “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,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”(막2:27)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면,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안식(Rest)과 평안(Peace)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?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(시42:5,11, 43:5),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. 즉, 1)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고, 2)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로 결단하며, 또한 3)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주님께 다 보여드리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,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(참된) 치유와 회복, 그리고 (참된)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도 베드로도 “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”(벧전5:7)고 말씀했습니다. 그러므로 현실의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, 쉼 없이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,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좇아,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며,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